

보도시점 2025. 10. 27.(월) 06: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5. 10. 24.(금)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대응... 올겨울 철새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 및 기간 늘린다

- 상시예찰 지점 92→102곳, 예찰 기간도 1개월 연장
- 겨울 철새 총조사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상시예찰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올해 10월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 동절기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 : ('22/23) 2022.9.25.(가나가와현, 매), ('23/24) 2023.10.4.(홋카이도, 큰부리까마귀), ('24/25) 2024.9.30.(홋카이도, 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복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 '25.6월 농장 발생 2건 : 서산 육용오리농장(6.14), 김해 토종닭 농장(6.27)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할 방침이다.

* 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철새 유입시기, 지역적 확산 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기법

아울러 지난 9월에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시료채취 및 출입 관리 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수는 53여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여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라면서,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강화 계획.
2. 2025년 10월 겨울철 철새 총조사 결과.
3.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수칙.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20)
		팀 장	서기관	황의정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김미정 (044-201-749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	책임자	팀 장	이수웅 (062-949-4350)
		담당자	연구관	정혜성 (062-949-4390)
		담당자	연구사	시영재 (062-949-4380)

□ 예찰검사 강화

- (예찰기간) '25. 9월 ~ '26. 4월(8개월)

※ '24~'25년 동절기에는 상시예찰반을 '24.9월~'25.3월(7개월) 운영

- (예찰지점) 전국 총 112개 철새도래지(기후부 102, 농식품부 10)

- (예찰방법) 철새도래지 주변 상시예찰 및 검출지역 주변 특별예찰

□ 겨울철 철새 총 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25. 9. ~ '26. 4.)

- (겨울철새 모니터링) 오리과 조류 등 겨울철새의 전국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실시(월 1회, 국립생물자원관)

구분	도래 초기*	월동기(10월~다음 해 3월)			복상 완료***
		정착시기	안정기	복상시기**	
시기 (횟수)	9월 말 (1회)	10~11월 중순 (월 1회)	12~1월 중순 (월 1회)	2~3월 중순 (월 1회) 2~3월 말 (월 1회, 신규)	4월 (월1회)
조사 지역 수	10개소	150→ 200개소 (50개소 ↑)	200개소	200개소/10개소	10개소

* (초기도래) 개체군 초기 도래 현황 대표 지역(10개소) 조사(9월 말, 1회)

** (복상시기) 주기적으로 겨울철새 복상현황 조사(2~3월, 월1회 추가, 10개소)

*** (복상완료) 개체군 복상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10개소) 조사(4월 중,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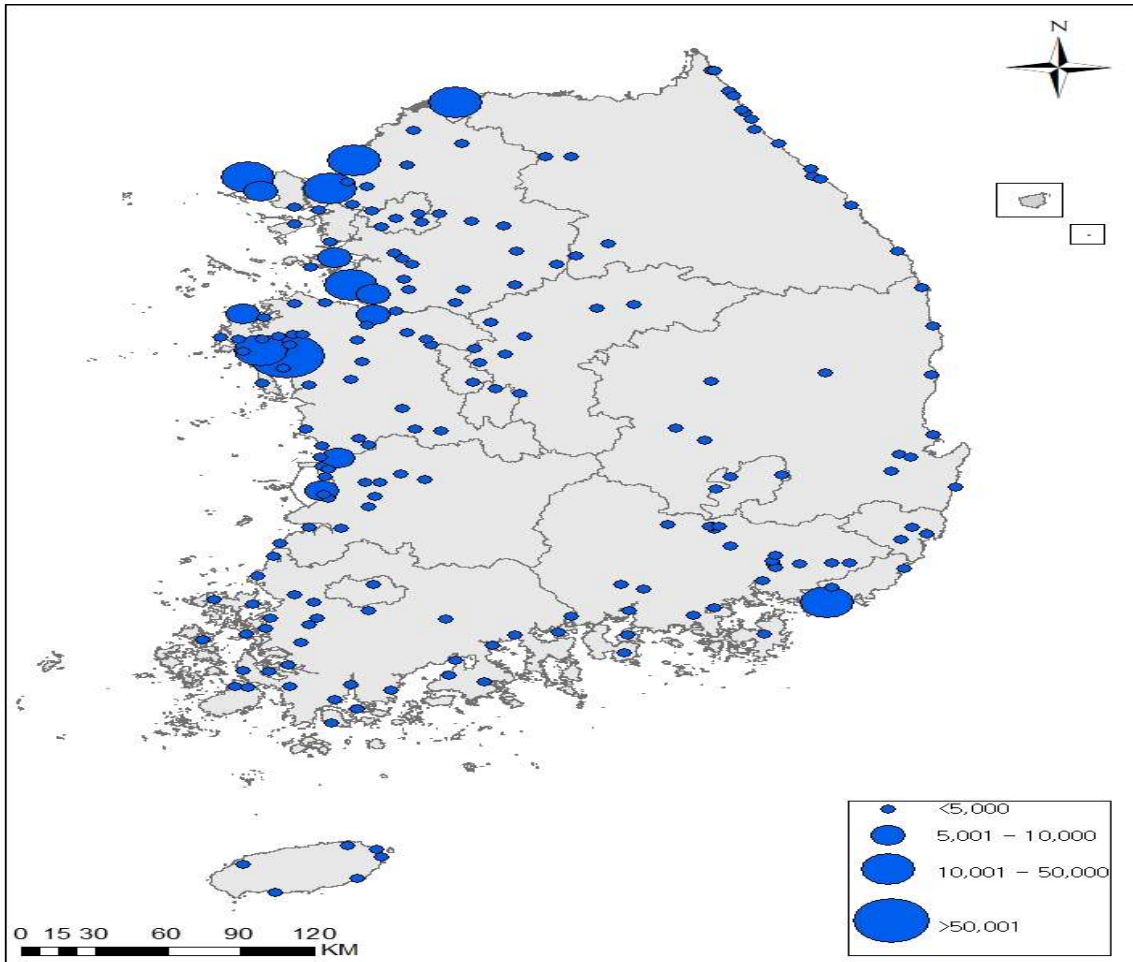
□ 전년 동기('24.10월) 대비 전체 물새 개체수는 73.7% 수준임(150개소 기준)

○ 현재 월동안정기(12월~1월)에 비해 오리과조류는 일부만이 도래하였으며, 12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전년 대비 개체수 증감 >

구 분	개체수			전년 대비 증감 (150개소 기준)	
	'24.10월 (150개소)	'25.10월 (150개소)	'25.10월 (200개소)		
전체 물새	726,139	535,343	629,341	△ 190,796	26.3% ↓
- 오리과조류	523,394	346,064	360,256	△ 177,330	33.9% ↓
· 오리류	199,050	120,098	133,251	△ 78,952	39.7% ↓
· 기러기류	324,217	225,911	226,950	△ 98,306	30.3% ↓
· 고니류	127	55	55	△ 72	56.7% ↓

<그림> 오리과조류 분포지도(200개소)



조류인플루엔자(AI) Q&A

Q1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호흡기 질병

Q2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변에 오염된 AI는 4℃에서 35일간 생존, 호수 등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
※ 가금육은 75℃에서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 사멸

Q3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양, 물, 분변 등을 신발, 의복, 차량바퀴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된 전파 경로

Q4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

AI 감염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 설사, 구토, 식욕, 행동이상(머리 기울임, 머리·목 비틀기), 보행이상(기립 및 날개짓 불능) 등을 보임



조류시 신고요령

이럴때 신고하세요

-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발견 시
- ※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



여기에 신고하세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360/ 4385)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 수칙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국민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국민행동 기본원칙



AI 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지역 출입 금지

불가피하게 AI 발생지역 방문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 준비
활동 후 탈의 및 비닐로 밀봉
※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 권장(일회용 물품 폐기, 나머지 세탁)

AI 발생지역을 다녀온 후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
출입 자제 및 AI 발생지역에서 낚시 금지



이동시에는 분변, 깃털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 분변에 노출 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



철새서식지 출입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